



2022 ANNUAL REVIEW



아·태 범죄통계 협력센터



UNODC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UNODC-KOSTAT
Centre of Excellence for Statistics
on Crime and Criminal Justice
in Asia and the Pacific



통계청
Statistics Korea

2022
ANNUAL REVIEW

아·태 범죄통계 협력센터

Table of Contents

03 발간사

06 상반기 주요활동

14 하반기 주요활동

「아·태 범죄통계 협력센터 2022 리뷰」 를 발간하면서



아·태범죄통계협력센터(이하 "협력센터")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범죄통계 발전을 위한 거점으로서,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한국통계청이 2019년 공동으로 설립한 대전소재의 국제 기구입니다.

협력센터의 업무는 크게 아태지역내 국제표준범죄분류(ICC) 이행과 범죄통계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교류협력, 범죄통계 교육훈련, 기술지원 및 역량 강화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2022년 협력센터가 수행한 업무결과를 소개합니다.

연구 및 개발 분야에서 협력센터는 수감자수 분석, 성인지 관점의 범죄분석 연구 등을 통해 아태지역 범죄통계 발전을 꾸준히 추진해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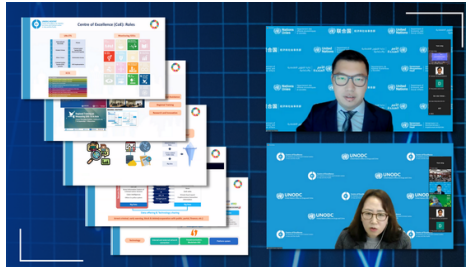
교류협력 분야에서는 2022년 1월 UNSD와 중국통계청이 공동으로 개최한 <SDG 모니터링 워크숍>에 참석하여 아태지역 지식혁신 허브로서 협력센터의 역할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연세대-리버풀대의 <여성범죄 예방 워크숍>, 대한범죄학회-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제7회 전국범죄피해조사 공동 학술대회>, ESCAP <제8차 통계위원회> 등을 통해 범죄통계분야에서의 국제적인 파트너십을 강화하였습니다.

범죄통계 교육훈련 관련하여 아태지역 통계연구소(UNSIAP), 유엔마약범죄사무소 본부, 협력센터가 공동으로 실시한 2차 성인지 관점의 범죄통계 교육 이러닝 세미나는 총 36개국 232명의 참가자가 수료한 성공적인 행사였으며, 이를 통해 아태지역내에서 범죄통계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2019년 발발한 COVID-19 팬데믹으로부터 회복하고, 회원국의 범죄통계 지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협력센터는 워크숍, 세미나, 교육 프로그램 등을 주최하여 회원국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강화하고 회원국의 범죄 통계 관련 역량을 향상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이는 보다 정확하고 포괄적인 범죄통계 분석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증거기반의 범죄 대응 정책 및 예방 방법을 검토하고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협력센터는 1단계 사업(2019-2022년)동안 아태지역의 범죄 통계 협력을 강화하고 회원국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범죄 통계 교류협력, 기술지원 및 연구 개발 결과는 회원국의 범죄 대응과 예방에 기여하고, 기술지원을 통해 지역 전반의 범죄 통계 역량을 향상시켰습니다. 2단계 사업(2023-2026년)을 맞이해 협력센터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회원국과 협력하여 아태지역의 범죄 및 형사사법 통계를 발전시킬 것입니다.

2023년 8월
아·태범죄통계협력센터장 최종희



2022.01.12-13
SDG 성과 관리 국제 워크숍 참가



2022.03.22
젠더 관점에서의 범죄통계 공동개최



2022.05.15
공정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위한
국제 사회사업 혁신과 협동 포럼 참가



2022.05.17
2022 데이터 수집 주기
아태지역 온라인 브리핑 참가



2022.05.25-26
아태 중남미 범죄통계 협력센터
공조 ICCS 이행 회의 개최



2022.06.17
제7회 전국범죄피해조사
공동 학술대회 참가



2022.06.20
젠더 관점에서의 범죄통계
두번째 온라인 강의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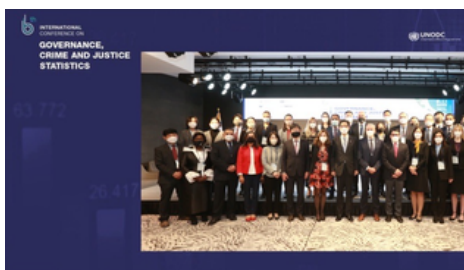
2022.08.02-11
인신매매 해결 방안에 대한
집중 강의: 3P 패러다임 참가



2022.08.23
ESCAP 제 8차 통계위원회 참가



2022.09.28-30
세계 보편적 정보 접근의 날 기념
국제 컨퍼런스 참여



2022.11.07-09
제 6회 거버넌스, 범죄 및 사법 통계
국제 컨퍼런스 주최



2022.12.05
협력센터 2단계 사업 연장 체결

지속가능발전목표 성과 관리 국제 워크숍 ‘SDG 성과 관리를 위한 범죄 통계의 새로운 기회’ 세션 진행

아·태 범죄통계 협력센터(이하 협력센터)는 2022년 1월 12~13일 실시된 유엔통계위원회(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성과 관리 국제 워크숍(International Workshop on the Monitoring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 참가했습니다.

본 워크숍은 중국통계청 후원으로 아·태지역 각국 통계청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지표 성과를 관리하는 전문가가 참가했습니다.

SDG 성과 관리 및 검토는 2030 지속가능발전 어젠다(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달성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토론자들이 2030 어젠다를 추적·관찰하기 위한 적절하고 고품질의 세분화된 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각국 통계청은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통계 품질 관리의 어려움을 공유하며 데이터 수집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협력센터 박현정 센터장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위한 데이터 혁신과 이니셔티브(Data Innovations and Initiatives for SDGs) 세션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 성과관리를 위한 범죄 통계의 새로운 기회(New Opportunities in Crime Statistics for Monitoring SDGs)”라는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박센터장은 유엔 범죄동향 및 형사사법체계 조사(UN-CTS) 수행을 위한 형사사법데이터의 사용과 역할, 한국범죄분류(KCCS) 개발, SDGs 성과 관리와 역내 지식혁신 허브로서의 센터의 임무, 기술 지원, 역내 교육훈련 및 혁신적 연구 수행 등 협력센터의 역할에 대하여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내스마트 치안 정보망(Smart Policing Intelligence Network), 스마트 치안 빅데이터 플랫폼(Smart Policing Big Data Platform) 등의 한국 혁신 실무 사례를 소개하며 범죄통계 데이터 수집에서도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한 새로운 방법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본 워크숍을 통하여 향후 SDG 모니터링을 위한 데이터 수집 및 조정을 더욱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SDG 모니터링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데이터 혁신과 계획, 데이터 세분화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발전들을 국제, 지역 및 국가적 차원에서 더 나은 접근방식을 모색하여 SDG 모니터링을 더욱 효율적으로 이행하게 될 것입니다.

제2차 온라인 강좌·세미나: 젠더 관점에서의 범죄통계 성공적 개최

성인지 측면의 범죄 통계를 우선순위로 개발·사용하려는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협력센터, 유엔 아·태지역 통계연구소(SIAP)는 <제2차 온라인 강의: 젠더 관점에서의 범죄 통계(Second Online course on Crime Statistics from a Gender Perspective)>과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온라인 강의는 2월 14일부터 3월 20일까지 훈련 참가자의 자기 주도적 대화형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강의는 총 네 가지 모듈로 구성되어 모듈 1은 범죄와 젠더, 데이터 소스와 방법에 대한 기본 개념을 제공하고 모듈 2는 성인지 범죄 데이터를 더욱 효과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관련 SDGs의 메타데이터를 소개했습니다. 모듈 3은 형사·사법체계에서 성인지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모듈 4에서는 'R'을 이용한 SDG 지표 계산 방법을 직접 선보였습니다.

해당 강의는 총 36개 회원국 232명이 참여했고, 참가자 90%가 전문지식과 기법을 효과적으로 강화하였다고 답변했습니다.

온라인 강좌 개강 첫 날, 웨비나를 실시하여 본 과정 주제에 대한 기초지식과 훈련 플랫폼 사용 방법에 대한 정보와 범죄에 있어 성인지 측면, 성주류화, 여성살해 및 젠더기반 범죄 통계의 방법론적 도구, 그리고 전반적인 이러닝 과정에 대한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나아가 본강의는 전문가와 강사, 훈련 참가자들이 함께 실시간으로 토론하는 장을 마련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UNODC의 Enrico Bisogno 데이터 개발 및 보급 과장, 아태범죄통계협력센터 박현정 센터장, UNSIAP Shailja Sharma 소장의 개회사로 강의는 시작되었습니다. 박센터장은 개회사를 통해 “젠더기반 SDGs를 포함하여 범죄·사법 통계와 관련한 SDG 지표의 젠더 개념과 프레임워크에 대해 참가자들이 토론하고 배울 수 있는 환경 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Shailja Sharma 소장은 “회원국이 SDGs를 관리하는데 있어 고품질의 신뢰도 높은 지표를 생산 가능할 수 있게 하는데 기구간 협력이 중요하다” 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협력센터는 SDG 목표에 기반한 젠더 범죄 데이터와 양질의 전반적인 통계를 생산하는 역내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외 정책결정자에게 알리려는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공정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위한 국제 사회사업 혁신과 협동 포럼 참가

협력센터는 2022년 5월 13-16일 연세대학교 주최로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진행된 <공정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위한 국제 사회사업 혁신과 협동 포럼(Global Social Work Innovation and Collaboration for a Fair and Inclusive Society Forum)>에 참가했습니다.

젠더 기반 폭력, 특히 여성폭력 예방은 국제적으로 심각하게 다루어지는 사안이지만 국가 차원의 데이터 가용성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이와 관련한 지속적인 국제 이슈에 따라 사회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여성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서 본 포럼은 개최되었습니다.

포럼은 네가지 세션으로 구성되었고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포용적인 사회 건설에 대한 관점(Perspectives on Building Inclusive Communities)
- 여성폭력 예방(Preventing Violence Against Women)
- 장래 사회사업에서 유망한 학자(Rising Scholars for Future Social Work)
- 건강 및 기술 향상 전망 (Outlook on Improving Health and Skills in Practice)

연세대와 영국 리버풀대의 학자 및 연구진을 포함한 관련 분야 실무진과 현직 경찰 등이 발표와 토론에 참여하여 데이터 수집의 우수사례, 불평등과 여성폭력 관련 이슈를 해소하는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협력센터 신성재 연구관은 여성폭력 예방 세션에서 “측정을 통한 평등: 아·태지역 범죄와 젠더 데이터(Equality Through Measurement: Crime and Gender Data in Asia and the Pacific)” 발표를 통해 아·태지역에서의 여성폭력 및 여성살해 관련 데이터 수집의 문제점을 언급했으며 UNODC의 이니셔티브, 방법론 도구와 데이터 수집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박현정 센터장은 토론자로 참여하여 학계와 경찰에서 여성폭력 데이터 수집시 사용하는 설문의 신뢰성과 품질에 대하여 논의했습니다.

본 포럼은 협력센터와 범죄·형사사법 통계 분야 학계 및 실무자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협력센터는 앞으로도 범죄통계 국제협력 파트너십을 확장하고 증거기반 정책결정의 기초가 되는 범죄·형사사법 통계 중요성을 제고하는 활동을 지속할 것입니다.

2022 데이터 수집 주기 아태지역 온라인 브리핑

UNODC는 매년 회원국의 마약과 범죄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제공하는 국가들과 함께 데이터의 날(Data Day)을 기념해오고 있습니다. 회원국은 범죄 양상과 범죄 예방 동향, 국내 범죄피해조사 이행 분석, 사법 체계 성과 국내 검토, 범죄통계시스템 내부의 정보 흐름과 기관간 관계를 파악하고 통합하여 관련 자료를 제공하게 됩니다. UNODC가 수집한 자료는 국제범죄분류의 표준화된 정의에 따라 해당 범죄와 관련된 SDG 지표를 작성하는데 직접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UNODC의 데이터 수집은 아래 5가지 질문지를 기반으로 국가별 담당자를 통하여 수행되고 있습니다.

- 연례 보고 설문지 (Annual Report Questionnaire, ARQ)
- 개인 마약 압수 (Individual Drug Seizures, IDS)
- 유엔 범죄동향 및 형사사법체계 조사 (UN Crime Trends Survey, UN-CTS)
- 불법무기흐름 질문지 (UN Illicit Arms Flows Questionnaire, UN-IAFQ)
- 인신매매 국제 보고 설문지 (Questionnaire for the Global Report on Trafficking in Persons, GLOTiP)

협력센터는 매년 데이터 수집 기간(Data Collection Cycle) 동안 UN-CTS, UN-IAFQ, GLOTiP 설문지의 자료 수집이 원활하도록 본부의 업무를 지원합니다. 특히, 설문지는 SDG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지역사회)과 SDG 16(평화, 정의, 강력한 제도) 세부 10개 지표에 대한 자료 제출을 가능하게 합니다.

2022년 UNODC는 데이터 수집의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별 담당자를 대상으로 해당 브리핑을 열었으며 총 15개국 (호주, 피지, 인도네시아, 키리바티, 말레이시아, 몰디브, 몽골, 파키스탄, 필리핀, 팔라우, 대한민국, 사모아, 싱가포르, 태국)에서 38명이 참여했습니다.

협력센터의 진행에 따라 UNODC 통계전문가 David Rausis가 글로벌 데이터 수집 개요와 UN-CTS를 소개하고 Camelia Abdelgelil은 IAFQ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UNODC 피지 사무소의 Marie Jane Fatiaki는 GLOTiP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세션을 통해 SDG 상황의 역내 개관과 데이터 수집과의 연관성에 대한 내용을 논의하고 지역내 업무 담당자의 문답을 통해 UNODC 자료 수집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아·태, 중남미 범죄통계 협력센터 공조 ICCS 이행 우수국가 회의 주최

2022년 5월 25일 - 26일 아·태 범죄통계 협력센터와 UNODC 본부, 중남미 범죄통계 협력센터 (UNODC-INEGI Center of Excellence in Statistical Information on Government, Crime, Victimization and Justice)는 멕시코시티에서 <아·태 중남미 범죄통계 협력센터 공조 ICCS 이행 회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Crime for Statistical Purposes Meetings between Asia and Latin America)>를 개최했습니다.

UNODC는 범죄·형사사법 통계를 최적화하고 국제적 비교와 일관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론 도구로서 국제적으로 동의된 개념, 분류, 정의에 기초한 국제표준범죄분류(ICCS)를 개발하여 현재 각국의 이행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ICCS는 범죄, 폭력, 정의, 그리고 법에 의한 통치 분야의 SDG 측정을 위한 자료 제출이 가능하게 합니다.

ICCS 회의는 참여와 기술교류의 두가지 분야로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ICCS 참여 회의 (ICCS Engagement Meeting)'는 UNODC Enrico Bisogno 데이터 개발 및 보급 과장, 통계청 정향우 기획조정관, 멕시코 통계청장 Oscar Jaimes Bello의 개회사로 시작되었습니다. ICCS 이행 단계에 있는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멕시코, 한국의 대표는 자국에 ICCS를 도입하는 과정을 소개했고 문제점과 시사점을 공유했습니다. ICCS 이행에 관심을 보인 바레인, 몽골, 아랍 에미리트 또한 회의에 참여했습니다.

다음날 "ICCS 기술교류 회의(ICCS Technical Meeting)"에서 한국과 멕시코 통계청은 ICCS 이행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이를 통해 협력센터는 멕시코와 한국의 ICCS 이행에서 상호간의 이해를 통해 공통으로 겪는 문제를 발견하고 ICCS 도입 메뉴얼 개선을 위한 후속 작업과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본회의는 ICCS 이행에 참여한 국가의 관심을 높이고 국가적인 관점에서 상황을 이해하며 아·태 협력센터와 중남미 협력센터, 한국과 멕시코 간의 파트너십을 제고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센터는 이를 계기로 역내 ICCS 개발 참여 회의의 개최를 모색하고 이행 과정에 관심을 보이는 회원국을 꾸준히 참여시킬 것입니다.

제7회 전국범죄피해조사 공동 학술대회 참여

협력센터는 2022년 6월 17일 대한범죄학회(Korean Criminological Association)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Justice)이 공동으로 주최한 <제7회 전국 범죄피해조사 학술대회>에 참가했습니다.

학술대회는 범죄·형사사법 분야의 학계 인사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연구진이 참여했습니다. 2020년 전국범죄피해조사를 이용한 국민안전실태조사와 전국범죄피해조사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겪은 현장조사의 어려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학술대회는 코로나 팬데믹과 전국범죄피해 현황, 코로나 팬데믹 시기 범죄와 범죄 피해 동향 등의 두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협력센터의 김지수 데이터 분석관은 '국제기준에 맞는 한국의 전국 범죄피해조사를 위한 고찰(Korea National Public Safety Survey for Internationally Comparable Victimization Survey)'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김분석관은 UNODC의 범죄 데이터 수집 흐름, 조사항목, UN-CTS, SDGs 지표를 소개하며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데이터 수집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SDG 16 세부지표를 측정하기 위해 최근 UNODC, UNDP, OHCHR이 공동 개발한 설문지 기반의 SDG 16 조사 이니셔티브(SDG16 Survey Initiatives)전국범죄피해조사의 조사표 개선 질문지를 강화하는 실례로서 소개되었습니다.

본학술대회는 차후 전국범죄피해조사의 주관기관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의 협력은 물론 정부기관과 학계 전문가들과 긴밀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수감인원 요약분석 e-간행물 발간

협력센터는 2021년 12월부터 아태지역 수감 인구에 대한 통계 자료를 취합하고 분석하여 요약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전반적인 수감 인구 추이, 수감자 성별 통계, 미결 수감자에 대해 주목했고, 이후 세부 지역의 통계를 시각화와 함께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에 발간한 요약 자료는 지난 20년 간 가장 높은 수감 인원 증가율을 보인 동남아시아 통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지역은 2019년 기준 총 119만명이 수용시설에 수감되어 있고 이는 2000년 대비 120% 증가한 수치로 다른 아시아 태평양 지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협력센터는 범죄통계의 수집과 사용 개선, 증거기반 정책결정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역내 정책 결정자들과 일반 대중을 포함한 다양한 이용자에게 범죄 및 형사사법통계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HISTORICAL TRENDS | Difference between decades

The prison population in South-eastern Asia was approximately 540,000 in 2000, rising to 641,000 in 2009, representing an increase of **18.7%**. Between 2010 and 2019, the prison population went from about 672,000 to 1,188,000, increasing by **76.6%**. This shows a considerable growth rate during the more recent decade in South-eastern Asia prison popul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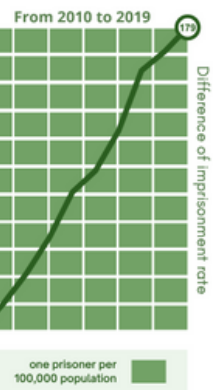
**Figures have been rounded, and all percentages have been calculated using unrounded figures.*

The number of detainees has risen since 2000, but significantly since 2010 in South-eastern Asia.

Imprisonment rate
= $\frac{\text{prison population}}{\text{total population}} \times 100,000$

In 2000, 103 persons per 100,000 population were held in prison, increasing to 109 persons in 2009; an absolute increase of **6**

In 2010, 113 persons per 100,000 population were held in prison, increasing to 179 persons in 2019; an absolute increase of **66**



젠더관점에서의 범죄통계 - 두번째 온라인 강의 공개

범죄 및 형사사법제도 관련 SDG 지표 관찰의 어려움을 대응하기 위한 시의적절하고 고품질의 범죄통계에 대한 수요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2022년 6월 20일 유엔마약범죄사무소, 아태 범죄통계 협력센터와 유엔아태통계연구소는 자율학습형 <젠더관점에서의 범죄 통계 - 두번째 온라인 강의(The Second Online Course on Crime Statistics from a Gender Perspective)>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2월 성공적으로 진행된 첫번째 온라인 강의에 이어, 이번 두번째 강의 또한 참가자에게 젠더 관련 범죄통계를 수집하는데 필요한 기본 개념과 방법 및 프레임워크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소스(행정자료 데이터, 표본조사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자료 처리에 대한 지식을 전달했습니다.

강좌는 총 5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으며 범죄, 젠더관련 통계 및 SDG 지표의 수집 · 산출 · 분석 또는 배포에 권한을 가지고 있는 유관기관의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범죄와 젠더 통계 심층학습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링크 (<https://siap-elearning.org/login/index.php>) 혹은 아래의 QR 코드를 통하여 수강할 수 있습니다.

The banner features the logos of the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UNODC), UNODC-KOSTAT (Centre of Excellence for Statistics on Crime and Criminal Justice in Asia and the Pacific), and the United Nations Institute for Statistics and Demography (UNISAP). The main title is "THE SECOND ONLINE COURSE ON CRIME STATISTICS FROM A GENDER PERSPECTIVE". Below the title, it says "SELF-PACED LEARNING". A QR code is located in the bottom right corner.

세계인신매매 반대의 날을 지지하기 위한 “인신매매 통계 방법론” 세션 주최

2022년 8월 2-11일, 제주국제연수센터(UNITAR CIFAL Jeju)와 발리 프로세스 지원사무소(RSO)는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인신매매 해결 방안에 대한 집중 강의: 3P 패러다임(Intensive Course on Measures to Address Human Trafficking: the 3P Paradigm - Prosecution, Protection, and Prevention)>을 공동 개최했습니다.

아태지역 반인신매매 관련 국제기구, 학자, 연구원, 경찰을 비롯한 유관 정부 기관 반인신매매 담당자는 다음과 같은 주제로 그룹화된 네 개의 워크숍에 참가했습니다.

- 인신매매와 밀입국 양상에 대한 이해
- 피해자 보호 및 보호 조치의 필요성
- 효과적인 법률체계 및 인신매매피해자와 기소간 연관성
- 인신매매 방지 전략 구축

협력센터는 ‘인신매매 통계 방법론’을 주제로 세션을 구성하여 UNODC의 방법론 도구, 기준, 데이터의 중요성 및 인신매매의 성행과 검출의 차이 등을 검토했습니다. 신성재 연구관은 ‘아태 범죄통계 협력센터 연구: 인신매매’를 주제로 발표하고 세션의 사회 또한 진행했습니다. UNODC 피지 사무소의 사회부 담당관 Marie Jane Fatiaki는 ‘인신매매 데이터 수집 방법, 도전과 기회’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UNODC 정보관리담당관 Badar Munir와 파키스탄 연방조사기관 반인신매매 부서 담당관 Javed Akbar Riaz는 UNODC와 협력하여 인신매매 및 밀입국 데이터 수집에 대한 국가 경험사례를 공유했습니다.

본 회의는 센터가 다른 유관기관들과 관계를 공고히 하고 인신매매 데이터에 관련된 정부 기관 및 시민 사회단체 관계자와의 미래 협력을 강화하는 좋은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재소자인구 요약분석 e-간행물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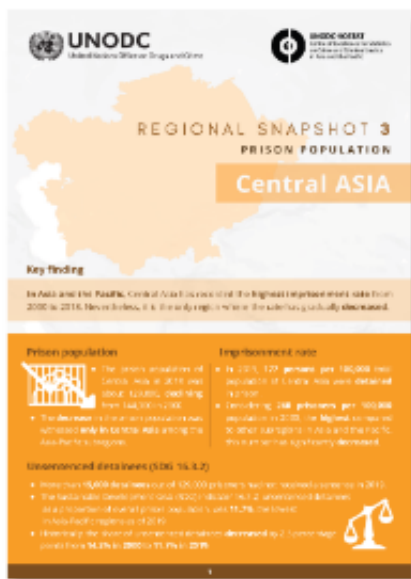
2022년 8월 18일, 협력센터는 아태지역 수감인원 요약분석 세번째 간행물 – 중앙아시아편을 발간했습니다.

아태지역 수감인원 요약분석 시리즈는 첫번째 간행물-지역 개관부터 시작해, 아태지역 수감인구 동향, 미결수감자 및 과잉 수용 등 교도소 관련 이해를 촉진하기 위한 통계정보를 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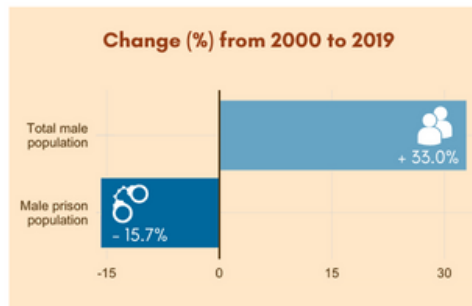
이번 세번째 간행물은 중앙아시아의 수감인원 동향을 다루었습니다. 중앙아시아는 아태지역에서 2000년부터 2019년 동안 인구 10만명당 수감자 수가 가장 높게 기록되었으나, 절대 수감인원 수는 점진적으로 감소했습니다. 특히 남성 수감인원에서 이러한 양상은 두드러졌습니다.

증거기반 정책 결정은 신뢰할 수 있는 출처로부터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전제로 합니다. 이 간행물 시리즈에 사용된 데이터는 UNODC가 회원국으로부터 범죄동향 설문조사(UN-CTS)를 통해 수집되어 UNODC 데이터 포털에서 누구나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협력센터는 아태지역에서 증거기반 정책 결정을 위한 범죄 통계 자료 및 활용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범죄 및 형사사법제도에 관한 유익하고 흥미로운 통계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HISTORICAL TRENDS | Prison population



♂ The male population has grown by 33% from 2000 to 2019 in Central Asia. However, **the male prison population showed a decline of 15.7%** in the same period. Such decreasing trend in the male prison population was **observed** only in Central Asia in Asia and the Pacific. The female prison population trends could not be estimated due to limited data availability.

제8차 통계위원회 'SDG 16 관찰을 위한 혁신방법론' 부대행사 주최

협력센터는 UNODC 본부와 협력하여 2022년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방콕에서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진행된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의 <제 8회 통계 회의 (8th Committee on Statistics, CST8)>에서 “SDG 16 관찰을 위한 혁신방법론(Innovative Methodology to Monitor SDG16)”이라는 주제의 부대행사를 공동 주최했습니다.

CST8은 다섯개의 공식 위원회 세션, 세개의 전문가 대화, 여섯 개의 부대행사로 구성되었습니다. 회의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의 사무국장 Armida Salsiah Alisjahbana, 태국 디지털경제와 사회부 장관 Chaiwut Thanakamanusorn, 통계부서의 책임자 Stefan Schweinfest (UNSD/DESA), 조지아 통계청 상임이사 Gogita Todradze의 개회사로 시작했습니다.

협력센터와 UNODC 본부는 아태지역 회원국 및 준회원국의 범죄 및 형사사법 통계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해 이 행사를 개최했으며, 고품질 데이터와 증거에 기반한 정책결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발된 유엔마약범죄사무소의 최신 방법론을 공유했습니다. 카자흐스탄 통계청의 전략기획과 개혁 기관 SDG통계 부서의 책임자 Ainur Dossanova는 SDG16 조사 이니셔티브를, 통계청 김태균 주무관은 국제표준범죄분류(ICC)에 대한 발표를 하였습니다. 박현정 센터장은 젠더관련 여성살해 (페미사이드/ 페미니사이드) 통계 측정 프레임워크를 발표했으며, 이후 세션에 대한 질의응답이 뒤따랐습니다.

이 세션은 회원국과 준회원국에게 유엔마약범죄사무소의 방법론 도구와 관련한 기술지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범죄 및 형사사법통계의 우선순위를 촉진하며, 협력센터가 범죄 및 형사사법통계의 지역 허브로서 역할을 강조하는 장으로서 마련되었습니다. 해당 회의에는 총 181명의 관계자가 참여했습니다.

앞으로도 협력센터는 범죄 및 형사사법체계 분야의 국내외 기관, 학계 및 전문가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협력센터, 통계청 주최 '2022 국가 통계 분류 개발 포럼' 참가

협력센터는 2022년 9월 26일 통계청에서 주최한 <2022 국가 통계 분류 개발 포럼 (National Statistical Classification Development Forum 2022)>에 참여했습니다. 대한민국 통계 분류에 대해 국내 기관 및 관계자가 모여 토론하는 이 포럼에는 법무부, 경찰청, 한국형사·법무정책 연구원, 경찰과학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개발연구원 및 학계 인사가 참가했습니다.

포럼은 국제 기준에 따른 증거 기반 정책 수립을 위해 산업, 건강, 직업 및 범죄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통계 분류를 표준화하는 작업을 소개했습니다. 세션 중, 충남대 곽대훈교수는 '국내 범죄 동향 및 범죄 분류'를 발표하여 국제표준범죄분류(ICCS) 도입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관련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박현정센터장은 토론자로 참가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ICCS를 도입한 타국가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협력센터는 포럼 참여를 통해 범죄 및 형사사법 통계 분야의 학계 및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한국형 표준범죄분류(KCCS) 대책위원회에 기여할 방법을 파악하며, ICCS 이행의 어려움과 한국의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협력센터는 국가의 요구사항을 더 잘 이해하고 반영하기 위하여 향후 ICCS 멘토링 워크숍 및 이러닝 강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세계 보편적 정보 접근의 날 기념 국제 컨퍼런스 참여

협력센터는 세계 보편적 정보 접근의 날(International Day for Universal Access to Information, IDUAI)을 기념하기 위해 유네스코가 개최한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9월 28-30일 열린 컨퍼런스는 전자정부, 인공지능, 정보접근에 대하여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지속가능한 발전 관점에서의 혜택과 위험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네번째 세션 '정보접근법 및 시행의 진전 측정'에서 유네스코와 협력센터를 비롯한 참석자는 2022년 SDG 16.10.2 보고서 주요 결과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평화로운 포용적 사회의 증진과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으며 포용적인 기관의 수립과 관련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박현정 센터장은 해당 세션에서 유엔마약범죄사무소의 SDG 16 진행 상황 추적관찰 및 방법론 수단에 대해 발표를 했으며 범죄형사사법제도 분야의 데이터 가용성에 대한 인식제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유엔 범죄동향조사(UN-CTS) 및 SDG 16 조사 이니셔티브 등 UNODC가 개발한 다른 국제표준도구를 소개했습니다.

이외에도 협력센터는 유네스코와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준비한 다양한 활동 및 세션에 참가하여 국제기구, 개발기관 및 연구기관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였습니다.

제6회 거버넌스, 범죄 및 사법 통계 국제 컨퍼런스 주최

협력센터는 한국 통계청, 멕시코 통계청, 유엔마약범죄사무소, 중남미아태협력센터와 공동으로 하이브리드 형식의 <제6회 거버넌스, 범죄 및 사법 통계 국제 컨퍼런스(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Governance, Crime and Justice Statistics)>를 개최했습니다.

컨퍼런스는 한훈 통계청장, Garciela Márquez Colin 멕시코 통계청장, UNODC 정책분석국 Jean-Luc Lemahieu 공보부장의 개회사로 시작되었으며, 처음 아태지역에서 주최된 행사임에 따라 해당지역에서 거버넌스, 범죄 및 사법 통계 관련 정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활발한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증거기반 정책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의 가용성, 우수성, 활용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관련 방법론을 논의하고, 범죄형사사법통계 분야에서 국가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총 16개 주제로 다양하게 구성된 세션에서 약 60명의 연사가 전문 지식을 공유했으며, 특히 목요일 특별 워크숍 세션에서는 인구 조사를 통한 범죄와 폭력의 측정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박현정 센터장은 '분쟁 속에서 젠더폭력 및 폭력을 근절하는 데이터기반 의사결정' 세션에서 유엔 여성기구 Melissa Alvarado 담당관과 합동발표를 통하여 '젠더 관련 여성살해 ("페미사이드/페미니사이드") 통계 측정 프레임워크'를 소개하고 특히 아태 지역에서 여성살해에 관한 인식을 높이는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최연옥 통계청 차장, Adrián Franco 멕시코 통계청 차장, Angela Me 유엔마약범죄사무소 연구 동향분석국장은 폐회사를 통해 지속가능개발목표(SDG) 관련 데이터 갭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각국 통계청, 정책입안자 및 범죄형사사법통계분야 전문가와 학자를 한자리에 모으는 컨퍼런스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컨퍼런스는 95개국 총 751명이 참가했으며 성공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대한민국 통계청, 협력센터 업무 협력 강화 협약 체결

2022년 12월 5-6일, 유엔마약범죄사무소와 한국통계청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협력센터 업무와 관련하여 잠재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프로젝트 연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와 한국통계청의 공동프로젝트로 시작된 협력센터의 1단계 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됨에 따라 양 기관은 2단계 사업을 위한 연장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 연구동향분석국(Research and Trend Analysis Branch)과의 회의에서 박센터장은 2단계 사업 방향성 및 국제표준범죄분류(ICC) 이행, 회원국 맞춤형 기술지원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협력센터가 1차 사업기간 동안 수행했던 아시아지역 SDG 16 교육과 젠더관점으로 본 범죄통계 온라인강의 등 협력활동과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특히, 2단계 사업기간 동안 협력센터는 ICCS 이행 매뉴얼을 포함한 여타 UNODC 방법론 도구를 개선시키고, 태평양 지역 SDG16 교육 및 아태지역 회원국에게 ICCS 이행 및 부패 조사, 범죄피해자조사 등 설문조사 기술지원을 제공하기로 동의했습니다.

협력센터는 1단계 사업 활동에 이어 새롭게 시작되는 2단계 사업기간 동안 지역의 지식혁신 허브로서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범죄형사사법제도 통계 자료의 생산, 수집, 분석 및 보급 관련 통계 방법론을 개선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 회원국의 증거기반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적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기술을 지원하는 훈련 활동을 제공할 것이며 신규사업 발굴 및 사업확대를 위하여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역내 범죄통계지원의 외연을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남아시아의 재소자인구 요약분석 e-간행물 발간

협력센터는 2022년 12월 30일 아태지역 수감인원 요약분석 네번째 간행물 - 남아시아편을 발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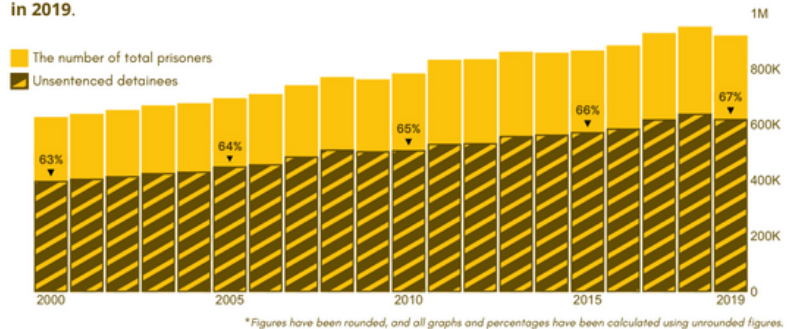
아태지역 수감인원 요약분석 시리즈는 직관적인 데이터 시각화를 통하여 통계에 대한 사전 지식 이 없는 정책결정자 및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통찰력을 제공하여 아태지역 수감인구 동향, 미결수감자 및 과잉 수용 등 수감에 연관된 문제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25%를 차지하는 남아시아의 수감인원 동향을 다룬 이번 간행물은 유엔범죄동향 조사(UN-CTS)를 통해 회원국으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한 UNODC 데이터 포털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연구결과, 남아시아의 수감율은 인구 10만명당 48명으로 가장 낮았으나 2000년 이후 미결수감자 비율은 일관되게 가장 높았습니다.

협력센터는 증거기반 정책 결정은 신뢰할 수 있는 출처로부터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전제로 가능하다는 일념 하에 데이터 생산, 수집 및 분석에 대한 기술을 지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The number of unsentenced detainees in Southern Asia had been on the rise from 390,000 in 2000 to 620,000 in 2019. Even considering that the total number of detainees also grew by 47% during the same period, the unsentenced detainees showed a greater extent, a 56% increase. This can be represented by the share of unsentenced detainees up from 63% in 2000 to 67% in 2019.





UNODC-KOSTAT

Centre of Excellence for Statistics
on Crime and Criminal Justice
in Asia and the Pacific

**Solid Data
Strong Policy
Safe Community**

coekostat.unodc.org